



금주의 말씀

사도행전 10장:1~8절



변의석 목사
영평침례교회 담임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기억해 주기를 원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적 명령을 내린다(왕상2장6절-9절). '내가 죽거든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하라' 시므이가 솔로몬 옆에 있었기에 옛날 일을 생각하며 곁에 두지 말라 부탁한 것이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도와주었던 바르실라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 후대해

달라 말했다. 다윗은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잊혀 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넬료이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고넬료는 로마 가이사라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는 해묵이 통치할 때는 행정 수도이기도 했다. 로마총독 주문자가 있는 곳이다.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 고넬료는 경건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백부장은 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기를 좋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하다 하신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즉,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경건의 능력이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한다. 백부장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착취했는데 고넬료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약1:27절)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 또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제함으로 썩어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는 길이다. (눅12:33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것이 된다. 계5: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어린 양 앞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 된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금 대접에 담는다고 하시겠는가? 사43: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

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 행9장에 음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과부 이야기가 나온다. 여제자라 부른다.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여제자라 호칭했다. 그 여인은 옷 만드는 일과 수선하는 일을 잘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다. (3절) 그는 죽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평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다.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성전에 나아가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시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나그네 인생길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시니라.'(마10:42절)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왜 기도가 경건이라 말할까? 왜냐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된다. '천사가 이르되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되었다'고 말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다.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지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 되어

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타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감격과 은혜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홍경범 교수
· 한국심리학회 회장 겸 전남대지부

[2]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산백과사전에서 화석(化石, fossil)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화석은 지질시대의 퇴적암 안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하다. 동식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나타난 경우 체화석(body fossil)이라 하고 발자국, 기어다닌 자국 등의 생활 모습이 나타난 경우 흔적화석(trace fossil)이라 한다.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퇴적물 속에 급히 묻히고, 딱딱한 부분(뼈, 이, 껍질 등)이 있어야 하며, 철저한 딱딱해 지거나 다른 물질로 바뀌는 등의 암석화작용(岩石化作用: solidification)을 받아야 한다."(괄호 안의 영어와 한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삽입한 것임).

체화석은 동식물의 유해 자체가 아니라, 광물질이 동식물의 조직 속으로 침투하거

나, 혹은 대체함으로써 암석화한 것이다.

장순근이 쓴 <망치를 든 지질학자> 19쪽을 보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설명한다.

"화석은 화석의 주인공이 죽어 가라앉고 그 위에 퇴적물이 운반되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화석이 들어있던 지층이 습곡되고 다시 융기된 후 침식되어 우리의 눈에 띈다."

위 단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기술하면, 화석은 (1) 죽어서 (2) 가라앉고 (3)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고 (4) 굳어져서 만들어 진다.

조개가 죽은 다음 퇴적물에 묻혀버리지 않으면 조개는 입을 벌리게 된다. <그림 1>은 조개가 죽은 다음 입을 벌리기 전에 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퇴적물에 묻혀버린 것이다. 즉, 생매장된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논리로는 입을 다물고 화석이 된 조개 화석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림 2>를 보자. <그림 2>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도중에 화석이 된 물고기 화석이다. 이 경우도 진화론자들의 논리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지로나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면, 작은 물고기를 입에 문 큰 물고기가 바다나

역사전쟁(8)

<그림 1>의 조개 화석을 살펴보자.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 만약 이 화석의 주인공인 조개가 (1) 죽어서 (2) 가라앉고 (3) 그 위에 퇴적물이 쌓여, 퇴적물에 묻히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까?

조개의 높이가 2cm라 가정하고, 조개가 퇴적물로 완전히 덮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자.

다윈의 <종의 기원> 자료로 계산해보면 고생대라면 300년, 중생대라면 1,000년, 신생대라면 2,000년이 걸리며, <다윈도 모르는 진화론>의 자료로 계산해보면 캄브리아기라면 117년, 중생대라면 34년이 걸린다.

진화론적 지질학자들이 만든 지질 역사 중 중생대 그것도 <다윈도 모르는 진화론> 자료로 계산한 시간이 가장 짧은 34년이 걸린다.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 퇴적물에 묻힐 때까지 참고 수천, 수만 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림1> 조개 화석



<그림2> 먹이를 잡아먹는 도중에 화석이 된 물고기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82. 38년 된 병자(요5:1~9)

예루살렘 성문에는 세 가지 동물 이름이 있었는데 양문, 어문(느3:3, 느12:39, 습1:10), 말문(렘31:40)이 있었다. 2~3절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자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

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삼십팔 년 된 병자도 있더라고 했다. 그 사람은 많은 병자들을 가운데 제일 병이 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못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까지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고통 받는 자들의 희망을 알고 싶어 하시며, 그들의 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신다. 이때 가련한 병자는 자기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7절) 그는 자기의 무력을 한탄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됨으로 삼십팔 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노블요양병원

밝은아름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